

# 기술·친환경·신뢰 ‘3박자’… 중형 조선사, 하반기 수주 낭보

대한조선 한달새 총 10척 추가  
수주 잔량 27척, 3년치 일감 확보

HJ중공업 최근 선박 총 5척 수주  
이르면 내달 美정부와 MSRA체결

케이조선 올해 10척, 8200억 성과



지난해 대한조선이 인도한 8000TEU급 컨테이너선의 모습.

/대한조선

상반기 수주 가뭄에 시달렸던 대한 등 국내 중형 조선사들이 하반기 들어 연이어 수주 소식을 전하고 있다. 빠른 납기와 맞춤형 설계, 친환경 기술 경쟁력, 꾸준히 쌓아온 신뢰가 수주 회복을 견인하며 최대 3년치 일감을 채웠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조선은 최근 파나마 선사로부터 약 3300억 원 규모의 8800TEU급 컨테이너선 2척을 수주했다. 지난 9월 대형 원유운반선 8척을 확보한 데 이어 한 달 만에 총 10척의 선박을 추가로 따낸 것이다. 특히 9월 전 세계에서 발주된 수에즈막스급 원유운반선 10척 중 8척을 수주하며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단숨에 끌어올렸다. 대한조선의 현재 수주 잔량은 27척으로 약 3년치 일감을 확보한 상태다.

대한조선은 지난해 8척(약 8억 4000만 달러)을 수주했으나 올해 이미 10척을 확보했다. 당초 10~12척, 약 9억 6000만

달러를 목표했지만 초과 달성 가능성도 커졌다. 회사는 강화되는 환경 규제에 대응해 지난해 영국선급(LR)과 암모니아 이중연료 추진 원유운반선 공동개발(JDP)을 체결했으며, 노르웨이선급(DNV)으로부터 액화천연가스(LNG) 이중연료 추진 셔틀탱커 설계 인증(AIP)을 획득했다. 수에즈막스급 원유운반선에서 확보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컨테이너선 시장으로 외연을 확장 중이며 내부적으로는 합정 MRO(유지·보수·정비) 사업 진출도 검토하고 있다.

HJ중공업도 수주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7월 에이치라인해운으로부터 1만 8000㎥급 LNG 병커링선 1척을 따낸 데 이어, 9월에는 오세아니아 선주사로부터 6400억 원 규모의 8850TEU급 친환경 컨테이너선 4척을 수주했다. 회사는 LNG·메탄올·암모니아 추진 등

차세대 친환경 선박 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번 컨테이너선에도 연료 효율과 적재 효율을 극대화한 설계를 적용했다.

방산 선박 부문은 이미 안정적인 수익원으로 자리 잡았다. HJ중공업은 고속상륙정(LSF-II), 참수리급 고속정, 독도함·파라도함 등 1200척 이상의 합정을 건조·정비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미 해군 MRO 시장 진출에 준비 중이다. 지난 9월 미 해군 해상체계사령부(NAVSEA) 실사단이 영도조선소를 방문해 자격 심사를 진행했으며, 이르면 11월 중 미국 정부와 합정정비협약(MSRA)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케이조선 역시 하반기 들어 수주 회복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지난 9월 유럽 선사로부터 5만 톤급 석유화학제품운반선 2척(약 1290억 원)을 수주하면서 올해

누적 총 10척, 약 8200억 원(업선 2척 포함)으로 작년(11척)과 유사한 수준이다.

케이조선은 MR(5만 톤급)석유화학운반선 부문 세계 2위, LR1(7만 4000톤급) 석유화학운반선 부문 세계 1위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 중이다. 안전성과 효율성이 핵심인 석유화학제품운반선 시장에서 고 효율·고부가 설계로 경쟁력을 확보했으며, 내년 8월 미 해군 MRO 사업 신청서 제출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국내 중형 조선사 수주량은 전년 동기 대비 72% 감소한 15만 CGT에 그쳤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미·중 갈등에 따른 발주 지연의 결과다. 하반기 들어 해운 상황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중형 조선사 수주가 잇따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 지원도 확대되면서, 과거 산업은행 중심이던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이 시중은행과 수출입은행으로 넓어져 유동성 부담이 완화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조선업은 사이클 산업인 만큼 상황이 좋을 때 수주를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재 다수의 중형 조선사가 추진 중인 MRO 사업이 향후 핵심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ehdhale@metroseoul.co.kr

## 고려아연

## 中 수출규제 1호 품목 ‘갈륨’ 공장 국내 신설

고려아연이 국내서 전략 광물 게르마늄의 생산 공장 구축에 나선 데 이어 중국의 수출 규제 1호 품목인 갈륨을 공급하기 위한 공장을 신설한다. 중국이 전 세계 갈륨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고려아연의 이번 공장 신설은 한국의 자원 안보 강화와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고려아연은 올해 10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약 557억원을 투자해 울산 온산 제련소에 갈륨 회수 공정을 신설한다고 19일 밝혔다. 고려아연은 최신 갈륨 회수 기술에 대한 최적화와 상용화에 성공해 공장 신설 비용을 대폭 줄였다. 그만큼 충분한 수익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2028년 상반기 시운전을 마치고 상업 가동에 돌입해 연간 약 15.5톤 갈륨을 생산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약 110억원의 이익(갈륨 가격 1kg 당 920달러 기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갈륨은 반도체 등 주요 첨단 산업의 필수 광물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자원안보 특별법을 통해 갈륨을 핵심 광물 33종의 하나로 지정해 특별 관리하고 있다.

미국 역시 국가 안보 측면에서 갈륨을 엄격하게 관리한다.

문제는 중국이 전 세계 갈륨 생산량의 98.7%(2024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이 갈륨에 대한 대미(對美) 수출을 전면 금지하면서 갈륨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런 가운데 고려아연이 국내서 자체적으로 갈륨 생산에 나서면서 한국의 자원 안보 강화와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란 전망이다.

/양성운 기자 ysw@

## CJ대한통운

## BPO 전문사 TCK와 초국경물류 상호협력

CJ대한통운이 글로벌 BPO(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 전문기업과 손잡고 초국경물류(CBE)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좁은 국내의 물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글로벌 셀러들의 신뢰받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글로벌 종합물류기업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CJ대한통운은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CJ대한통운 본사에서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TCK)와 ‘CBE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TCK는 전 세계 36개국에서 5000여 고객사에 아웃소싱 서비스를 제공하는 트랜스코스모스 그룹의 한국 자회사다. IT 솔루션 개발, 교육 컨설팅부터 이커머스 쇼핑물 운영 대행, 디지털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경영지원 서비스를 수행한다.

/김승호 기자

# 스마트공장 구축 中企 절반 “AI 도입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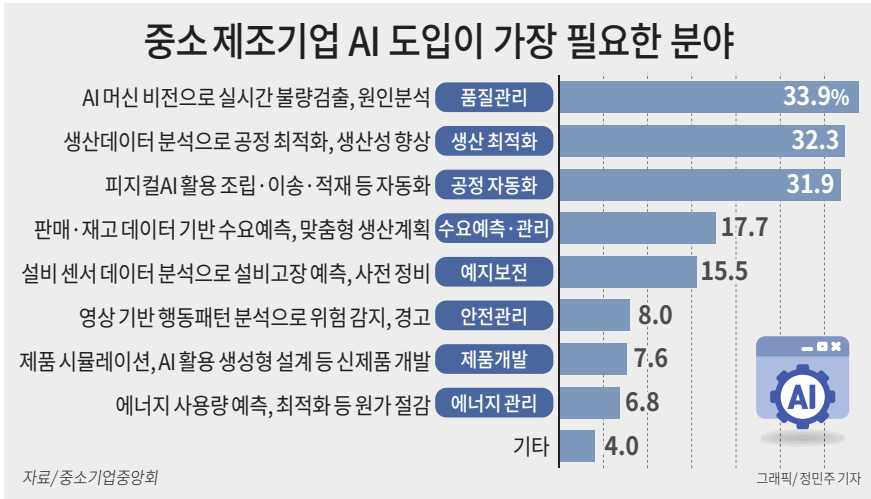
## 중기중앙회, 제조사 502곳 조사

도입 어려운 이유 비용·인력부족  
‘투자액 1억이상’ 답변 31% 그쳐  
72% “정부 직접 자금지원 필요”

스마트공장 구축 중소기업들의 절반 가량이 제조 공정에 AI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초기 비용 부담’ 등의 장벽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 실정이다.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위한 AI 투자에 1억원 이상을 쓰겠다는 곳은 10곳 중 3곳에 그쳤다. 아울러 정부에 바라는 1순위 요구로는 ‘직접 자금 지원’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런 가운데 10곳 중 6곳만 스마트공장을 운영하면서 제조 공정 데이터를 수집해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5년간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 502개사를 대상으로 ‘AI 도입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해 19일 내놓은 결과에서 나왔다.

조사에 따르면 스마트공장 구축 중소기업의 47.4%가 제조 공정에 AI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보수적인 답변인 ‘보통’까지 포함하면 응답기업

의 78.5%가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모습이다. 도입 스마트공장 구축 수준이 높을수록 도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컸다.

AI 도입이 가장 어려운 이유로는 ‘초기 비용 부담’ (44.2%)과 ‘전문인력 부족’ (20.5%), ‘AI 기술을 어떻게 공정에 적용할지 전략 부족’ (14.9%) 등

을 주로 들었다. 비용 부담 때문에 1억원 이상을 AI 도입에 투자하겠다는 답변은 31.1%에 그쳤다. 나머지 68.9%는 투자금액이 ‘1억 미만’이라고 답했다.

AI 도입시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복수응답)으로는 ‘직접적 자금 지원’이 72.3%로 가장 많은 가운데 ▲AI 전문 컨설팅 (21.9%) ▲전문인력 양성 지원 (19.3%) ▲신뢰성 높은 AI 공급기업과 매칭 지원 (16.7%) 등을 희망했다.

아울러 중소기업들은 AI 도입이 가장 필요한 분야로 ‘품질관리’ (33.9%), ‘생산 최적화’ (32.3%), ‘공정 자동화’ (31.9%) 등을 주로 꼽아 생산 현장의 효율성 제고, 품질향상에 대한 요구가 큰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응답기업들의 54.6%는 정부가 ‘AI팩토리’와 같은 AI 기반의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을 신설하면 ‘적극 참여하겠다’고 답해 관련 지원사업에 대한 기대가 컸다.

/김승호 기자 bada@

## ‘脫중국’ 포스코퓨처엠, 호주·탄자니아 등 공급망 다문화

## 포스코인터, 탄자니아 광산개발 착수 2028년 생산… 연간 6만톤 흑연 확보

전방 산업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포스코퓨처엠이 글로벌 ‘탈(脫)중국’ 공급망 재편 흐름 속에서 조달망을 강화하며 시장 입지를 확대하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퓨처엠은 흑연·음극재 분야 ‘탈중국’ 공급망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3월에는

호주 광산 업체 시라 리소시스와 연간 6만 톤 규모의 모잠비크산 천연흑연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열사 포스코인터 내셔널은 이달 초 매장량 기준 세계 2위 규모(600만 톤)로 평가받는 탄자니아 마헨게 광산 개발에 착수했다. 2028년부터 상업 생산이 시작되면 그룹 차원에서 연간 6만 톤의 흑연을 향후 25년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음극재 공정 내재화도 병행 중이다.

포스코퓨처엠은 지난 5월 약 4361억원을 투입해 구형흑연 생산 법인 ‘퓨처그라프’를 설립했고 전복 부안 새만금 공장에서 2027년부터 연간 3만 7000톤을 생산, 세종 음극재 공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인조 흑연도 생산하고 있다. 원료는 포스코 제철 공정에서 나온 부산물인 쿨타르를 가공해 만든 침상 코크스를 사용한다.

글로벌 2차전지 업계의 ‘탈중국’ 기

조가 강화되면서 수익성 악화로 부진을 겪어온 포스코퓨처엠의 음극재 사업도 반등의 기회를 맞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시장조사기관 SNE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음극재 시장에서 포스코퓨처엠은 비중국 기업 중 점유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 세계 음극재 출하량 1~10위는 모두 중국 기업이 차지하며 합산 점유율이 80%를 넘어섰으나, 포스코퓨처엠은 11위(약 1.3%)를 기록하며 공급망 전환 흐름 속 비중국 공급사로서의 입지가 부각되고 있다.

/원관희 기자 wkh@